

신한속독 187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16
07



Globalization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의 힘!

Issue 1 - 제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Issue 2 - 신한대 축제, 대체전

Issue 3 - 코이카의 메카 신한대학교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MOU 체결

·저명외부인사

·석학신한인, 저명교수님 4인 취재

·취창업지원센터 인터뷰

공부하는 배우 노영학
공연예술학과 공연 '악센'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총장 김병욱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16.07.03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저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김민지 기자

• 디자인-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2 325 3405 • 정가 8,000원

Contents

01_US.KOREA.SOL.1010.599.GX

02_신한 센세이션

04_신한류의 메카

06_신한류 페스티벌

12_신한대 축제, 대체전

18_코이카의 메카 신한대학교

26_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MOU

30_저명 외부인사_마이크임팩트

32_석학 신한인, 저명교수님 4인 취재

36_신한 슈퍼스타

40_취창업지원센터

44_신한국인 super star

46_기획취재_후식 디지털문화

48_인물특독_노영학

52_공연예술학과 공연

54_이모저모

58_대학발전기금

60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창조와 융합-글로벌 교육의 중심!

✓ 2015 정시모집 경쟁률 8.81:1 전국 3위!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류 시대!

US KOREA SOL
1010-599-GX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신한, *The* **쎬세이션!**

융·복합 교육의 중심에 바짝 다가서다!



Best University

- 전임교원 확보율 전국 평균 2배, 교수 1인당 학생 수 전국 최저
- 신입생 중도 탈락률 전국 최저 수준
- 취업위주 현장중심 교육의 새로운 메카

Global University

- 제 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국제화
- 아시아 넘어 아메리카로...학술교류 MOU 확대

Star University

- 석학 신한인, 저명 교수님 인터뷰
- 공연예술학과 '노영학' 인터뷰



‘신 한류의 메카’ 신한대학교

K-POP스타, 스트리트댄서, 패션루키발굴
‘신한류’는 신한대학교 한류의 줄임말

우리에게 ‘한류’나 ‘K-POP’이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하다. K팝 스타의 노래를 우리말로 따라 부르는 외국인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은 비를 맞아가며 공연을 기다리기도 한. 이미 한류는 문화 공감대로서 세계에 걸쳐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한대학교는 이미 ‘신한류’라는 문화의 중심이다.

K-POP 장르의 우수한 창작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신한대학교에서 매년 개최하는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은 작년에 처음 창설된 축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올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예선을 치르며 중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국제적으로 한국과 K-POP, 그리고 신한대학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도 공헌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가 주관하여 스트리트댄스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등 K-POP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한데 이어 국제 규모의 모델콘테스트인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까지 창설해 K-POP을 리드하는 대학으로 입지를 다졌다. 슈퍼루키 모델 콘테스트는 국내 우수 디자이너이자 신한대 디자인학부 교수인 김서룡 패션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 한류문화의 또 다른 지평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콘테스트로 신한대학교는 중국인을 포함해 4명의 모델 유망주를 배출했다. 국내 콘테스트 차원을 넘어 글로벌 모델대회로 격상시킴으로써 모델 발굴 콘테스트의 견본을 제시한 것이다.

한류는 익숙하다, 하지만 ‘신한류’는 어떨까?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의 것에서 전 세계적인 것으로 바꿔주는, ‘스타 양성의 메카’ 신한대학교는 이미 신한류의 메카가 되었다.

〈최희원 기자〉





제2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 K-POP 대표 축제로 거듭나다

이현수 외 5명 구성 '동네친구' 대상 수상
“대상수상은 저희음악 인생에서 매우 값진 경험...”

지난 5월 1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특설무대에서 펼
쳐진 '제2회 K-POP Shinhan류 뮤직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은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예
선을 치르며 작년보다 훨씬 많은 수의 팀이 지원한 만큼, 경쟁
도 치열했다. 지난 5월 13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진 '제2회 K-POP Shinhan류 뮤직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
리 되었다.

이 날 결선에선 이현수 외 5명으로 구성된 밴드 '동네친구'가 차지
연의 '담배가게 아가씨'를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김준
식 외 1명으로 구성된 '보이스북'은 김범수의 '끝사랑'을 불
러 금상을, 윤하의 '서쪽하늘'을 부른 박세아는 은상을,
이효리의 'U go girl'을 부른 AZ(정민진 외 3인)는
동상을, 알리의 '지우개'를 열창한 김지연은
특별상을 받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신한대 총장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졌으며
이들은 이후 가수이자 작곡가인 공연예술학과 주영훈 교수의 곡
으로 싱글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의정부 시장상과 상금 250만 원, 은상 수상자
에게 뮤직페스티벌 조직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 동상 수상자
에게 OBS경인TV 대표이사상과 상금 150만 원이 각각 주어졌다.
이 외 특별상 수상자는 뮤직페스티벌 준비위원장상과 상금 100
만 원을 받았다.



또한 1,000여 명의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이날 특설 무대에는 인기가수 '오 마이걸'과 '매드타운'이 초대가수로登台해 사람들을 열광시키면서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의 영향력을 입증해 보였다.

K-POP Shinhan류 뮤직페스티벌은 작년에 처음 창설된 축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올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예선을 치르며 중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으며, 내년에는 예선을 동남아 지역 국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지원처 관계자는 이에 따라 내년에 열릴 예정인 3회 대회에는 참가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K-POP Shinhan류 뮤직페스티벌은 전통적 축제가 가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와 훌륭한 교수진과 학생, 그리고 전문 시설 등 인프라를 활용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K-pop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은 의정부를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로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한국과 K-pop, 그리고 신한대학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도 공헌하고 있다.

신한대 김병욱 총장은 시상식에서 "신한류 뮤직페스티벌은 K-POP의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 마련한 공연 잔치로, 신한대는 페스티벌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창작인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세계적인 트렌드로 부상한 K-POP을 주도하는 대학으로 공연예술 중심대학의 입지를 굳히는 것은 물론 국제적인 주목을 끄는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지역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신한대와 의정부시가 함께 마련한 이 행사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대상을 거머쥔 동네친구(드럼 여현수, 건반 이석우 문지인, 베이스 유정희, 보컬 송민정, 기타 조관우)중 마스터를 맡고 있는 이현수 군의 인터뷰이다.

Music Festival ShinHanRyu





동네친구

I N T E R V I E W

Q&A

Q. 왜 팀명이 '동네친구'인가요?

이름 그대로 저희는 동네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원 모두 중·고등학교 때부터 밴드를 하며 친분을 쌓았고,
지금까지도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Q.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예술의전당에 서서 곡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이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는 공고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너무 나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에 지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나요?

공고를 본 날로부터 주 2회 정도 만나서 하루에 2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밴드는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연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지 않을 때는 각자 시간을 내서 개인 연습을 꾸준히 했습니다.

Q.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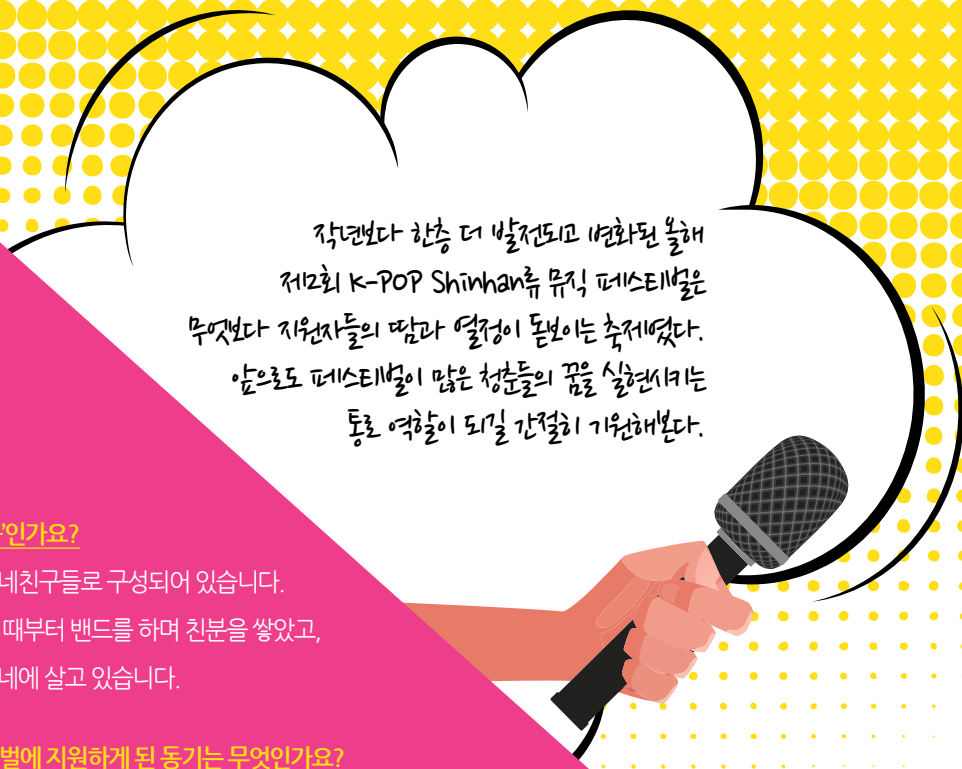
무엇보다 대중성 있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누가 “동네친구란 밴드 알아?”라고 물을 때, “아, 그 밴드 잘 알지.” 라고
대답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저희 음악이 널리 알려질 정도로 영향력 있는 밴드가 되고 싶습니다.

Q. 상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리고 주영훈 교수의 곡으로 앨범을 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감은 어떤가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금은 일단 서로 동등하게 나눈 후에 각자 쓰고 싶은 곳에 쓸 예정이고, 저는 음
향 장비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영훈 교수님의 곡으로 앨범을 낸다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팀원들과 함께 앨범 작업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Q. 동네친구에게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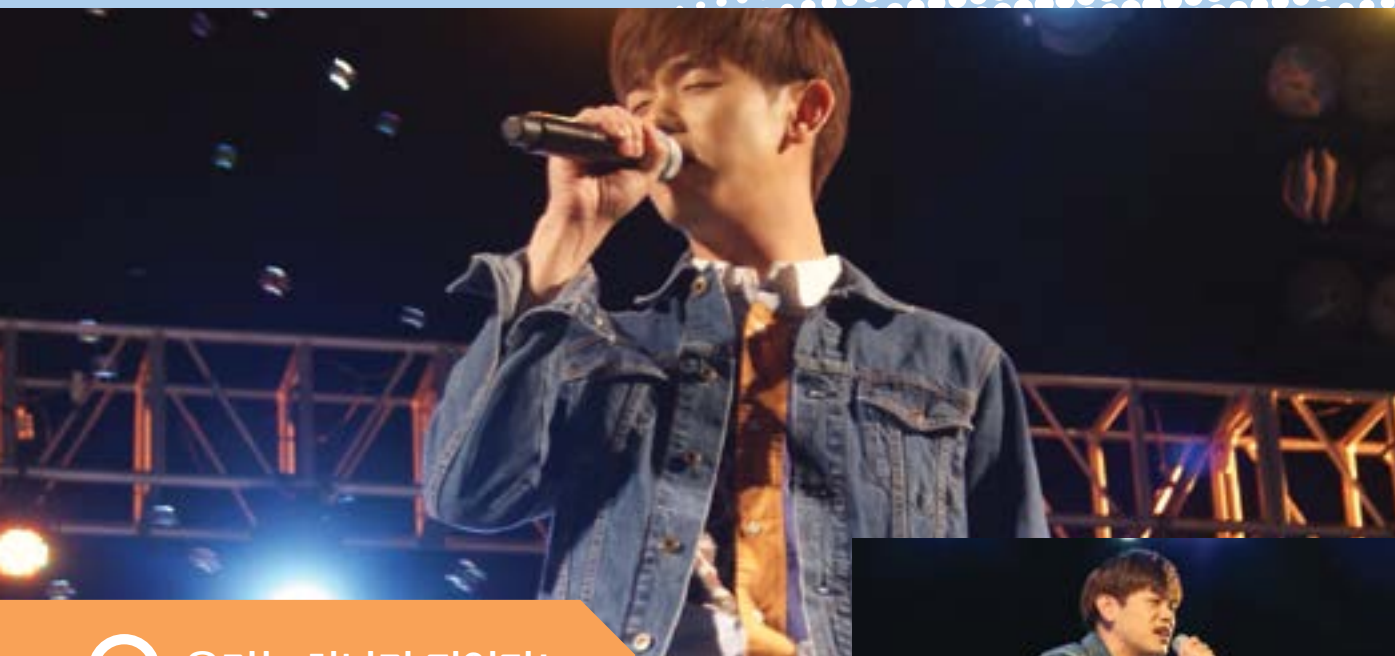
앞으로 저희들의 음악 생활에 있어서 평생 해보지 못할 값진 경험이었고, 꿈을 향한 발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보다 한층 더 발전되고 변화된 올해
제2회 K-POP 신한류 뮤직 페스티벌은
무엇보다 지원자들의 땀과 열정이 돋보이는 축제였다.
앞으로도 페스티벌이 많은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통로 역할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신한대동제·체전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5월, 학교생활에 지친 학생들에게 반가운 달이 왔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학교생활에 무더질 쯤, 5월 캠퍼스는 떠들썩한 축제분위기로 한껏 고조되었다. 학생들이 지친 생활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렸기 때문이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신한대학교 축제인 신한대동제와 체전이 열렸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과마다 부스를 준비하고 어떤 행사가 진행될지 학생들에게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번 축제로 인해 그동안 학교생활에 지쳐있던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낭만과 열정의 시간이었다.

신한대 축제로 학생들에게 일체감, 소속감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며, 학생들의 젊음의 에너지 발산의 장을 마련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단합 및 유대 강화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 축제는 신한대 대의원회인 '대디'(대학생활의 디딤돌)의 주체로 진행되었으며, 작년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및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는 2016학년도 새내기가 맞는 첫 캠퍼스 축제이자 종합대학 출범 3년차를 맞는 성숙한 축제로 'Shinhan인'이 하나가 되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대축제가 되었다.

Shinhan Daedong



오감만족 신한대동제!

많은 학과들이 부스를 진행하며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판매하였으며, 대디는 놀이기구를 마련해 흥겨운 축제를 준비했다. 총 동아리 연합회 '동사무소'에서도 축제를 더욱 더 즐겁게 하기 위해 '귀신의 집'이라는 이벤트를 준비했다. 중앙동아리에 속해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귀신 분장을 하고 동아리방을 귀신의 집처럼 꾸몄다. 이 이벤트는 많은 학생들의 인기를 끌어 기다리는 줄이 끊이지 않았다.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학생들, 그리고 연예인의 공연이다. 축제 기간 동안 끼 많은 학생들의 나와 재능을 맘껏 펼쳤다. 축제 첫째 날에는 신한대 방송국인 S.E.B.S에서 '도전, 그리고 5월'이라는 주제로 노래, 춤, 퍼포먼스를 잘하는 학생들을 모아 청춘가요제를 진행했다. 또한, 많은 동아리에서도 참가하여 그동안 연습



했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19일에는 개그맨인 박미루의 진행으로 많은 학생들의 숨어 있던 끼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이 펼친 장기자랑과 공연예술학과 K-POP 공연은 또 다른 즐거움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축제의 밤을 장식하는 연예인 공연은 여심을 사로잡는 에릭남과, 남심을 사로잡는 레이샤, 마지막으로 월드스타 싸이가 마무리를 했다. 특히 싸이가 공연할 때는 신한대학교가 울릴 정도의 함성소리가 캠퍼스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학생들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은 모두 하나가 됨을 보는 듯 했다. 대동제 종합우승은 IT융합공학부가 차지했으며 준우승은 사회복지학과, 3등은 공법행정학과가 차지했다.



우리는 하나! 신한체전!

운동장을 지나가다가 체전을 위해 연습하는 학생들을 봤을 것이다.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연습에 임했다. 며칠 동안 계속된 예선과 본선을 걸쳐 결선에 진출하자 참가 학과는 연습에 열중했고 많은 학생들이 응원에 나섰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선수들은 지친 기색 없이 경기에 임했다. 경기에 임하는 학생들을 위해 소속학과 학생들은 응원대제전에 참가해 응원에 열중했다. 응원단은 복장까지 맞춰 입었으며, 역동적인 동작까지 완벽히 소화했다.

이번에 열린 체전의 각 종목 결승에서 발아구는 치기공학과, 피구는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축구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농구는 임상병리학과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 E-SPORT인 LOL의 우승은 IT융합공학부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단체 경기가 있었는데 판 뒤집기, 농다리밟기, 미션 계주와 학회장, 대의원 그리고 교수가 함께하는 줄다리기 경기도 열렸다. 신한인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기에 참가하는 시간이 되었다. 체전은 학과 학생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만남의 장이 되었다.

〈김민지 기자〉

We are one!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
전 지원을 통해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



1년 기준 28억의 사업규모..... 66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실시

60여 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순위 109위의 최극빈 국가였다. 6.25 전쟁 당시 UN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이 나라를 복구하는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발전도 아닌 ‘복구’만 하는 것에도 적어도 100년이 필요한 나라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가 들어 오고 열차가 들어서고 각종 기술들이 들어왔지만, 문제는 광복 이후에 이 기술들을 다룰만한 사람이 한국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들어선 근대화는 독립 이후, 삼시간에 빠져나갔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혼란의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이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다.

‘38선’이라는 가슴 아픈 흉터가 생긴 뒤 한국은 극한의 가난 속으로 빠져들고 만다. 1960년대 대한민국의 소득은 79달러로 콩고, 필리핀, 가나보다도 낮았다. 이때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맥아더 장군의 말처럼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지는 100년을 앞질러 나갔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중동근로건설자로 많은 국민들이 낯선 타국의 땅을 밟으면서까지 나라의 재건과 발전을 위해 힘쓴 것이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지와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점차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50년 뒤, 대한민국은 세계국가순위 11위에 빛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선진국이 계속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만 그렇지 않던 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드는 것은 드물다.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가난의 아픔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생생히, 그리고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설치된 기관이 바로 코이카(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다. ‘함께 잘사는 인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생겨난 코이카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 차원의 대외무상협력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단순히 경제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해외봉사단을 주기적으로 파견하기도 하고 인도적 지원 및 해외 긴급구호, 민간협력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지구촌 행복시대 KOICA가 함께 합니다

코이카는 네팔, 도미니카 공화국, 라오스, 르완다,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와 교류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 인력은 일반봉사단(시니어단원 포함) 및 드림봉사단으로 구성되며 일반봉사단은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지원 가능한 해외 봉사단으로서 39개국에서 1,400여명이 활동 중이다. 일반봉사단 파견 직종은 6개 분야 총 37개이며 출국일로부터 2년이다. 드림봉사단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들에게 해외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봉사단 파견 사업으로써 파견 직종은 제과, 제빵, 요리, 전자, 용접, 기계, 자동차, 전기전력, 미용교육, 유아교육, 음악교육, 컴퓨터교육 등 12개이며 파견기간은 최장 12개월이다.

그런데 현지에 가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전공이나 적성이 맞는 분야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막상 적응하는 데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코이카 직무교육기관은 그래서 중요하다. 봉사단이 현지에 도착했을 때 능숙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탄탄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코이카 봉사단 직무교육기관은 외교통상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닌 대학들 간의 경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경쟁의 결과, 신한대학교가 한국기술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정부 파견 해외봉사단 교육사업인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직무교육'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재선정되었다. 1년 기준 28억 원의 사업규모이며,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향후 용역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2회, 3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다.

신한대학교는 이미 2014년부터 코이카 해외 봉사단 교육을 진행했으며 2016년 현재까지 48억의 규모로 1,436명의 봉사단원들을 교육했다. 2014년에 출범한 신한대학교가 여타 다른 명문대들을 제치고 2년 넘게 해외 봉사단 직무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는 그만큼 탄탄한 교육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과가 창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015년에 시행된 필리핀 보건교육직 프로그램직은 보건, 영양, 환경 등 3분야를 통합한 것으로 개도국 보건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형 봉사단이었다. 각 분야 봉사자와 통역 등 대외협력분야 봉사자가 팀을 구성하여 활동 국제개발과 연관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수원국에 기여하는 봉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필리핀 등 4국으로 파견되었으며 해당 지역 보건국 등 정부 부처 소속으로 보건 시스템 환경이 열악한 마을 단위로 파견활동을 했다.

4주 동안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소양을 익히고, 1주 동안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국내교육은 5주 동안 진행했으며 후에는 현지적응훈련을 진행했다. ODA 소양교육으로는 영어, 현지어, 안전관리, ODA 등의 수업을 받고 직무교육은 조사방법론,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국가별 보건 관련 실태에 관한 수업

을 공통적으로 진행했다. 이외에 분야를 나누어 보건, 영양, 환경, 통역, 홍보, 사회복지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인력이 부족한 보건센터, 보건 교육과 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 중학교에 봉사단을 파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교육팀의 정확한 역할 분담 및 맞춤형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전공, 경험, 파견 대상국별 활동 내용 차이에 따른 맞춤형 직무교육과 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액션 플랜 및 러닝이 실시되었다.



라오스 직무교육사업으로는 양한 교육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을 시도했으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 학교 교실 벽면을 이용하여 포스터 제작 및 시청각 자료를 개재했다. 보건교육을 통한 현지 학생들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유발시켜 이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봉사의 목표 중 하나였다. 신한대학교는 해외 봉사단 직무교육기관으로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직무교육기관으로서 봉사단원들이 갈 나라에 대해서 미리 잘 알아두기 위해 본교 교수들이 현지답사로 사회와 환경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직무교육 결과 우수 사례가 탄생하기도 했다. 102기 페루 정재희 교육생은 직무교육을 통하여 봉사를 받는 나라의 상태를 파악,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연구 기획을 시도해 우수 사례로 손꼽혔다. 또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중 액션러닝에서 페루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물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선택한 바 있는데 이때 손 씻기, 머리감기, 발 닦기 등의 습관을 통해 감염률을 낮추고 물 섭취가 인간의 생체 유지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림을 통해서 물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필리핀, 에콰도르, 몽골 등 총 4팀은 현장 사업 기획을 액션 러닝을 적용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직무교육을 통해 지원을 받는 나라의 지역별 보건환경 문제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팀별 통합형 보건교육 프로그램도 수행 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보건영양 환경상태가 호전되고 보건위생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신한대학교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직무교육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재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대학보다 앞서가는 책임감, 열정, 끈기,
그리고 꼼꼼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WORLD FRIENDS



109기 코이카 예비봉사단원으로 선발되어 6월 9일 르완다로 파견된 간호학과 곽민주 학생은 비누 만들기, 미술치료, 벽화 그리기 등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여러 직종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직무교육의 장점이었으며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단원들이 만족하는 것을 보고 신한대 졸업생이라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정식 계약이 체결된 이후 신한대학교는 5월부터 660명의 코이카봉사단원을 대상으로 파견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본교는 2016년 3월부터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Camaligan 빈혈관리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혈색소수치가 낮은 영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과 엽산 보충제를 보급하고, 2016년 7월까지 대상자에게 빈혈식사요법관련 교육 자료를 80% 이상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신한대학교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 세계가 곧 신한대와 신한인의 무대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코이카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 흐름에 '신한대학교'라는 이름이 새겨졌다. 코이카가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교류하고 있는 만큼 신한대학교도 마땅히 '코이카의 메카'로서 그 진가를 빛내야 한다. 그 빛은 곧 신한대가 '봉사의 메카'라는 사실의 증거물이다. '코이카의 메카' 신한대학교, 지금 부터가 시작이다.

<홍예지 기자>



Shinhan University Vision

신한대학교 인재상

-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국인" 양성
- 사랑과 봉사의 사명인
- 지성과 창의의 실용인
- 소통과 공감의 세계인
- 도전과 발전의 학습인

Start New-versity

- S _ ShinHan國人을 양성하는 New-versity
- T _ 재능(Talent)을 함양하는 New-versity
- A _ 행정(Administration)의 가치를 재창출하는 New-versity
- R _ 지역(Region)발전에 기여하는 New-versity
- T _ 내일(Tomorrow)의 비전을 함께 실천하는 New-versity

신한대학교의 4S 파워

- **Spirit** : 기독교 정신의 섬김을 통한 영성교육
- **Service** :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나눔교육
- **Synergy** : 통합과 융합의 새로운 창조교육
- **Specialization** : 특성화와 차별화된 전문교육



분단과 경계에 대한 국제적 연구 활성화에 나서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세계 저명 연구기관들과 MOU 체결



지구화 시대 한반도의 분단 체제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해 온 신한대학교 부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이 최근 해외 저명 연구 기관들과 MOU를 체결했다. 해당 기관들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부설 몽고·중앙아시아연구원, 아일랜드 트리니티 컬리지의 에큐메닉스대학, 일본 홋카이도대학 부설 유라시아 경계연구소, 일본 와세다대학 부설 한국한연구소이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경계문화, 사회체제, 분쟁과 갈등, 한국학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주도해 온 이 기관들과의 학술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연구와 교류 활동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1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몽고·중앙아시아연구원과 에큐메닉스대학과 공동주관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원 소속의 박현귀 교수(케임브리지 대학), 빌 프랑크 교수(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나탈리아 리조바 교수(극동연방대학)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아시아 접경지역의 공존과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와 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본 행사에서는 몽고·중앙아시아 연구원의 설립자이자 사회인류학의 거장인 캐롤라인 험프리 교수(케임브리지 대학)가 기조 강연자로 나서 지구화 시대 경계의 새로운 의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트리니티 컬리지 측에서는 “유럽의 경계, 갈등과 평화”라는 주제로 에큐메닉스 대학 학장인 질리언 와일리 교수(더블린 캠퍼스)가 유럽의 경계와 난민 및 안보 문제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데이비드 미첼 교수(벨파스트 캠퍼스)가 북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를 주제로, 그리고 김동진 교수(더블린 캠퍼스)가 북아일랜드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다 지속적인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 및 교육 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은 금년 학술대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심화시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아일랜드 평화프로세스의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아일랜드 트리니티 컬리지 소속 연구자들과 후속 학술행사를 기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본 홋카이도대학 및 와세다대학과 교환 학생 프로그램 신설, 교육 연수 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교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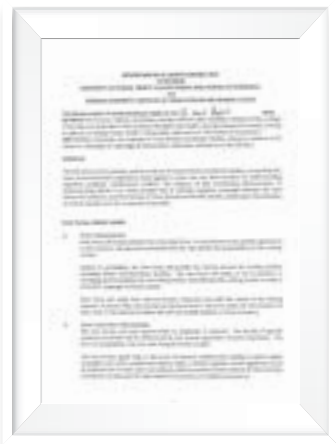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과 MOU를 체결한 기관들 개요



■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 소속: 몽고·중앙아시아연구원 사회인류학과
- 연구주제: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학제간 연구
- 학술지: Inner Asia 발간
- 연구 프로젝트: “서몽골족의 문화유산”,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한 문화적 인식”, “러시아-중국 접경 지역의 사회변화”, “불교문화와 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연구 사업 수행 중
- 홈페이지: <http://innerasiaresearch.org/>



■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 소속: 에큐메닉스 대학
- 연구주제: 국제적 맥락에서 평화, 화해, 대화 연구
- 학위과정: 분쟁해결과 조정, 상호문화적 신학, 상호종교학, 국제평화학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 학술서: 『인종 분쟁에서 국제적 개입』(2014년, 팔그레이브), 『현대 정치학에서 종말론적 인 운동』(2014년, 팔그레이브), 『해체된 교회』(2014년, 옥스퍼드대학출판), 『위기 시대의 종교』(2014년, 브릴) 등 매년 다수의 학술서적 출판
- 연구 프로젝트: “분쟁 해결에서 종교와 신앙의 역할”, “위기관리체계 경영에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 “21세기의 에큐메니즘” 등 다수의 연구 사업 수행 중.
- 홈페이지: <https://www.tcd.ie/ise/>



■ 일본 홋카이도 대학

- 소속: 슬라브·유라시아 연구 센터
- 연구주제: 슬라브·유라시아 지역과 전 세계의 경계에 대한 학제간 연구
- 학술지: (일본어 학술지), Eurasia Border Review(영어 학술지) 발간
- 연구 프로젝트: “경계관광업과 지역공동체”, “경계연구를 통한 국제관계 재구성”, “러시아의 에너지 프론티어와 지속가능성” 등 다수의 연구 사업 수행 중.
- 홈페이지: <http://src-h.slav.hokudai.ac.jp/ubri/>



■ 일본 와세다 대학

- 소속: 한국학연구소
- 연구주제: 동아시아 지역 형성이라는 맥락에서 한국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광역적 연구 접근법 모색, 현재적이고 통합적인 한국학 연구, 한국학 분야 미디어 관계자와 정책 실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 연구 활동: 국제심포지엄, 강연회, 한일 정책 포럼, 신진연구자발표, 정책 콜로키엄 등 정기적 학술 행사를 통해 한일간 다양한 공동 연구와 학술 교류 사업 추진 중.
- 홈페이지: <http://www.wiks.jp/>



청춘에게 열정을, 한동헌 대표를 만나다

강연문화개척자 '마이크임팩트' 한동헌 대표, 그가 전하는 청춘을 향한 메시지

청춘을 향해 메시지와 열정을 전하기 위해 강연을 하는 한동헌 대표.

대한민국의 강연문화를 이끌며 청춘들과 함께 청춘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강연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마이크임팩트는 강연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강연문화 콘텐츠 기업이라는 소개를 봤습니다. 먼저 간단한 회사소개와 함께 마이크임팩트의 타이틀이라 할 수 있는 강연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먼저, 마이크임팩트는 '마이크를 통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긍정적인 임팩트를 준다.'라는 뜻을 가진 강연문화 콘텐츠기업입니다. 저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기점으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만들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강연의 긍정적인 영향력이란 '강연은 책보다 강력한 임팩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보다도 강연이 더 영향력 있다고 믿어요. 저는 학생 때부터 강연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사람을 직접 만나 그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고, 책과 달리 내가 가진 삶의 고민의 답을 일방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어보고 그 답을 얻는 것이 아주 큰 임팩트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강연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믿고 세상에 전하고 싶었습니다.

Q. 진행하시는 다양한 강연 콘텐츠들 중, 스쿨에서는 어떤 교육이 이뤄지고 있나요?

스쿨은 우리가 만드는 학교라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쉽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고, 청춘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교육하고, 더 나아가 재미있는 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한 달에 150~200개, 하루에 5~10개 정도의 수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캘리그래피, 드로잉, 수제맥주 만들기 등 재미있는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학업에 필요한 Excel, PPT, 스피치와 인문학 등 실용적인 수업들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인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학생의 Need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대학생들은 취업이나 꿈을 찾아 가는 것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스쿨 외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저희들의 시작이자 가장 큰 이벤트인 청춘페스티벌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춘페스티벌은 청춘들이 약 4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대학생들 사이에 인지도도 높고 저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청춘들이 마음 놓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많이 좋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청춘페스티벌은 마이크임팩트의 본질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청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꿈과 열정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Q. 진행하신 많은 프로젝트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를 꼽자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청춘페스티벌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지만 <병맛 페스티벌>, <북학생 페스티벌> 등 A급이 아닌, B급 페스티벌들이 기억에 남아요. 잘 알려지지 않은 프로젝트였지만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시도였고 소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된 시도였다는 의미에서 저희다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 기억에 많이 남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Grand Master Class>같은 경우도 '강연을 베이스로 지혜를 전달하자'는 취지의 프로젝트였는데, 외국연사 '알랭 드 보통' 같은 분들을 저희가 초청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경험이었던 것 같아서 이 프로젝트도 저희가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Q. 마이크임팩트의 대표가 되기까지 대표님의 과정은 어떠셨나요?

저희끼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를 하자. '알랭 드 보통을 강연자로 세우자.', '이 건물을 마이크임팩트의 건물로 만들자', '스퀘어를 열자.'라며 기적이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했었는데 하나하나 이뤄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꿈들이 이뤄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말도 안 될 꿈을 무모하게 꾸고 될 때까지 해보는 경험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기적이 현실이 되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경험들이 저와 마이크임팩트의 성장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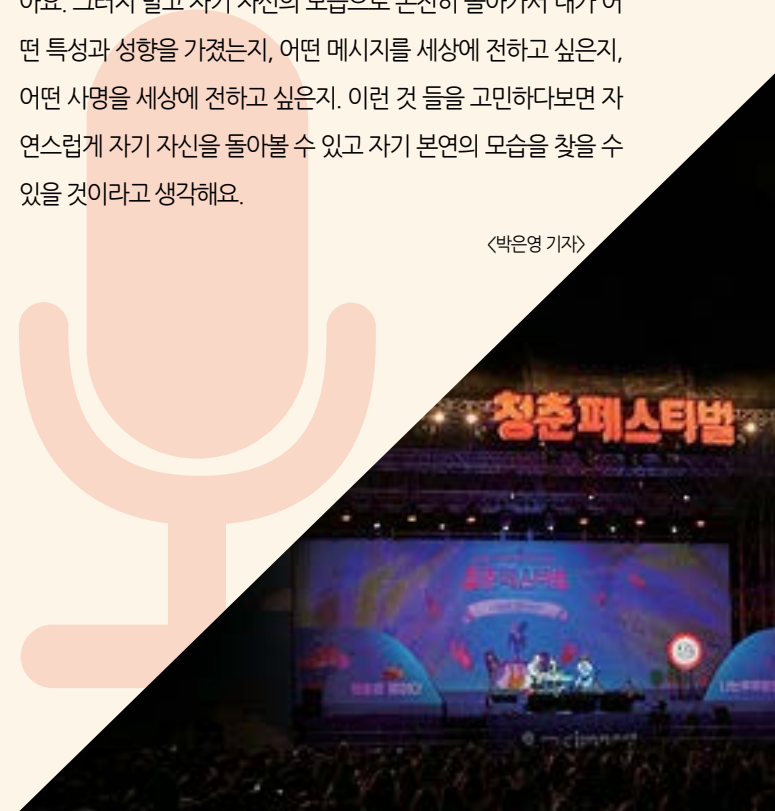
Q. 마이크임팩트의 10가지 가치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시기에 따라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패밀리 스피릿'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대안적인 공동체를 꿈꾸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나'와 '너'를 구분 짓지 않고 '우리'라는 가치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개인주의 사회가 심화되어 가고 있고 직장을 하나의 공동체나 조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일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시대에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인 것 같아서 공동체, '패밀리 스피릿'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더불어 대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Just be yourself.'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어서 본질적인 모습을 표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자신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메시지를 전하게 되거든요. 사실 많은 청춘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답을 찾거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내가 어떤 특성과 성향을 가졌는지,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지, 어떤 사명을 세상에 전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박은영 기자>



차세대 신한인을 이끌어 갈 석학교수 4인을 만나다. 김기성 / 김철진 / 장승재 / 신후식 교수

최근 대한민국은 나날이 고학력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의 수가 급증함과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제대로 된 교육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현재 교육의 ‘양’이 아닌, ‘질’을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우리 신한대학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석학교수 4인(김기성, 김철진, 장승재, 신후식 교수)을 초빙하였다. 그중 산학협력중점 김기성 교수를 먼저 만나보았다.



김기성 교수 중아시아 국가의 식품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김기성 교수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1985년에 고려대학교에서 Food Science 박사학위를 수여받았고, 1988-2015년까지 한

국식품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으며 다양한 이력을 쌓아갔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원직에 있었으며, 2007년부터 약 1년 간 한국 유가공기술과학회 회장을 맡았다. 또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아세안센터 아세안10개국 식품조사단 농식품분야전문가로 위임해 있었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한-중아시아 국제공동연구 사업 책임자(몽골, 카자스탄, 우즈베키스탄)를 담당했으며, 중아시아 식품종사자300명을 초청하여 연수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이자 몽골생명과학연구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몽골정부수여 공로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철진 교수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열심히 배우세요.”

신한대학교에서 Bio 생명과학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인 김철진 교수를 만났다. 김철진 교수는 서울대학교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생물공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Bio 소재 중 특히 식물성 원료의 조직 구조 분석을 통하여, 최적 식품가공 기술 개발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식물성 조직단백 (Textured Plant Protein, TPP) 생산체계를 개발하여 산업화했다. 또한 이때 응용한 식품압출성형공정(Food Extrusion Processing)을 쌀 도정 부산물 (미강, Rice bran, 유지 약 20% 함유, 국내 유일 식물성 유지지원)과 압출공정을 이용하여 미강의 유지 성분 안정화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 및 동남아 국가에 보급시켰다. 이 프로젝트 연구결과로 국내 최초로 식품압출성

김기성 교수는 주요 활동 분야로 축산물가공 및 위생관리시스템구축(HACCP)과 관련하여 정부지원 국내연구수행과 덴마크, 호주, 미국에서의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몽골, 카자스탄 등 중아시아국가 식품위생관리시스템구축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주요 업적으로는 몽골 시범 축산물가공 유가 공장 및 육가공공장 건설 및 운영시스템 구축과, 몽골 시범 식품분석검사실험실구축 및 운영시스템구축 등이 있으며, 몽골 등 중아시아 식품종사자 300여명을 초청하여 연수(식품가공 위생관리시스템)를 한 바도 있다.

김기성 교수의 평소 철학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것으로, 이는 그의 화려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몽골-덴마크-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여러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려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 곳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 걸맞은 철학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는 “외국어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

며 학생들의 꿈을 글로벌 영역으로 키워야 함을 상기시켰다. 이는 외국에 진출하게 될 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국내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먼저 체감해 본 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덧붙여 김기성 교수는 “본인의 적성과 재능이 있는 분야를 찾아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하였다.

이는 최근 들어 심각해진 취업난에 꿈에 대한 도전을 앞두고 망설이는 청년들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것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 곳에서만 안주하지 않고 더 넓고 다양한 곳으로 시야를 넓혔다는 김기성 교수의 대답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김기성 교수의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신한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권혜미 기자〉

형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재이다.

식품압출성형 기술의 응용연구로 인삼을 압출 성형하여, 추출물 및 인삼의 주요 기능성 성분 진세노사이드의 비배당화를 유도시켜 추출물 및 기능성을 배가시키는 기술 개발했다.

최근에는 천연식물유래 기능성 성분인 폴리페놀 (polyphenol) 및 플라보노이드(flavonoids)류의 추출 및 회수 효율을 증가시키는 압출공정의 응용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때 획득된 기능성 물질을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의 원료 소재로서의 유용성을 규명하는 협동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평소 큰일을 위해서 넓은 범위의 일을 알고자 하면서도, 관련 전문가를 존중하고 그 전문가와 협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김철진 교수는 “꼭 넓게 경험하되, 즐거울 수 있는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배우자”며 학생들에게 조언을 아

끼지 않았다. 이는 곧 사회로 나아갈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메시지에 더욱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교수는 근 40년간 한 분야와 직장에서 매진하다, 신한대학교에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른 교수님들과의 협동과, 그의 경험을 통하여 경기북부지역의 바이오 관련 사업의 발전 및 태동을 위한 연구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처럼 신한대학교는 참된 교육자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목표를 설립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신한대학교만의 질 높은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차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로 자라나길 기대해본다.

〈반지민 기자〉



장승재 교수

“충성과 몰입으로 성과를 이루세요.”

현재 DMZ 비전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 장승재 교수를 만나보았다.

여기서 DMZ란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의 약자이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 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인데,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비무장지대는 40여 년간의 출입통제구역이었으므로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승재 교수는 1989년부터 판문점과 DMZ를 출입하며 27여 년째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인 인물이다. 그 중 DMZ 관광 분야에서 주력해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데, 우리나라 최초 DMZ 전문 여행업체인 DMZ 관광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한지도 어언 14년째다. 그 이후로 한국관광공사 DMZ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 위원, 강

원도 DMZ 정책 자문 위원, 안전행정부 DMZ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자문 위원, 사) 한국생태관광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현재는 사) 코리아 DMZ 협의회 공동대표, DMZ 평화걷기 운동 본부 회장, 경기도 DMZ 포럼 위원, 한국 DMZ 관광협회 회장, 사) 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 국가지질공원 전문위원, 강원도 DMZ 일원 발전 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승재 교수는 2013년 DMZ 관광 창립 10주년을 맞아 “DMZ 관광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라는 제목으로 DMZ 관광 50주년을 조명한 경력이 있다. 이는 내 외국인들에게 그동안 접근하기 힘들었던 DMZ 관광의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DMZ 휴전선 철책선 걷기와 민간인 통제선 내 트래킹 및 생태체험, 군부대와 함께 하는 각종 병영체험 등 우리나라 분단의 현주소를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해 홍보에 전력을 다했다. 지속적으로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출시하여 국가기관과 지자체 및 여행업계의 신망을 얻었고, 신 관광 상품 개발로 관광업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다. 아울러 DMZ 접경 지역 군부대 GOP 대대에 도서 보내기 운동을 한

해 4회, 10년째 지속하고 있다.

장승재 교수가 통일 관련 관광 사업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데에 뒷받침해준 것은 ‘큰 뜻을 품고 작은 일에 충성하자’는 그의 삶의 철학에 있다. 여기서 ‘충성’은 자기 자신은 물론 하는 일과 조직, 주변 사람들, 그리고 조국인 대한민국에 충성을 한다는 의미이다. 충성심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는 어느 조직에서나 환영받기 마련이라며 충성은 사회생활의 기본정신이라고 주장했다.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춘인 신한인들에게 그는 ‘올인’하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깊이 몰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과야말로 보람된다고, 희망의 한마디를 전했다.

장승재 교수는 DMZ 비전연구소장으로서 연구와 경험을 토대로, 신한대학교가 DMZ 관련 명실상부 최고 대학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가 및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기반형 리딩 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신한인들의 ‘DMZ 비전연구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촉구하기도 했다.

〈변진영 기자〉

“
좋아하고 잘하는 것에
몰두하는 용기와 도전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후식 교수

경제 전문인으로서 말하는 신한인으로서의 꿈(夢)

신한대학교에서 국제통상 금융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신후식 교수를 만났다. 신후식 교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

학교에서 거시금융경제를 전공으로, 재무론 부전공으로 하여 석사 및 박사 과정 대학원 졸업을 마친 인물이다.

그는 지금껏 글로벌 경제·금융·산업·기업 구조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특히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자산 가격(주가, 상품 가격, 환율, 금리, 부동산가격 등)의 구조 변화와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 작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자산 가격 변동은 미래 기대수

익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경제·산업·기업 수익 전망 모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는 민간부문에서 대우경제 연구소 경제금융 연구본부 본부장과 대우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위원(chief economist)에 위임한 경력이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에서 거시경제분석과 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중장기 경제 및 산업 모형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중기(5년), 장기(50년) 경제전망 작업(국회 예산정책처)을 수행하기도 했다.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장기화, 남북통일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재정(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분석 작업도 병행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정책변수(국제금리 변동 등)와 외생변수(유가 변동 등) 변화가 국내 경제·

산업·금융·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정책 연구, 글로벌 경쟁력 변화 연구도 수행해 왔다. 신후식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한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한인 경제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볼 생각(夢)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해하는 신한인들에게 신후식 교수는 자신 있게 말한다. “행불무득(行不無得)이라는 말이 있다. 행함이 없으면 얻는게 없다는 의미이지요. 즉, 오늘의 나는 과거의 행함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고 미래의 나는 결국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는 긍정적인 꿈(을)을 꾸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치밀하게 실행하는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투자전략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변진영 기자〉



신한슈퍼스타3기

신한대학교의 새로운 얼굴을 상징하는 신한류의 홍보대사 슈퍼스타 3기가 출범되었다. 신한슈퍼스타는 신한대학교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슈퍼스타 2기 5명과 12명의 3기 멤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신입 멤버 12명은 신한대학교의 홍보대사로서, 신한대학교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스피치 트레이닝 교육을 이수하였다. 3기로 선출된 신한슈퍼스타는 신한슈퍼스타로서의 자긍심과 당찬 포부를 밝혔다.

〈홍예지 기자〉

SHINHAN SUPERSTAR

신한슈퍼스타3기



사회복지학과 이성훈
학생들을 대표해서 우리 학교의 좋은 이미지를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권민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으로서 학우들의 손과 발이 되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간호학과 전석호
신한대학교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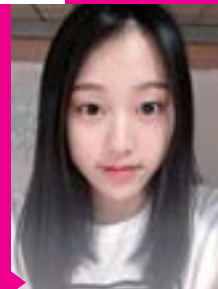
임상병리학과 김민서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과 자부심을 갖고 학교를 홍보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권솔희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하고 신한인들의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임상병리학과 오수영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로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에 애정과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기공학과 이상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홍보대사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홍보대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공학과 김관형
신한대학교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솔선수범하여 행동하겠습니다.



디자인학과 배은희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더 성장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조리학과 손성배
명성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었을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듯이 홍보대사에 걸맞는 품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치위생학과 이유헌
학교를 빛낼 수 있도록 항상 배우고자하는 자세로 신한대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임도연
신한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학교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취 / 창 / 업 / 지 / 원 / 센 / 터

신한대학교 개교 슬로건 '10-10'

10년 후 취업을 전국 10위권 이상의 대학으로 발돋움 목표로 삼아

취창업 지원센터는 경제동향과 산업체의 Needs를 수집 분석하여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취창업에 특화된 교육·진로·상담 등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취업 확대 및 창업 아이디어와 육성·발전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호림관 학생지원처로 가는 길의 오른 편에 마련돼 있는 취창업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인 유재경 교수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Q.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취창업 지원센터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의 첫 관문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문적인 1:1 컨설팅을 진행하여 독창적이며 완성도 높은 입사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합니다. 학생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전공 및 창업활동에 참여함으로 자주적 리더십과 사회성을 함양하여 취창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 모의 입사 경진대회나 자기소개서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실제 채용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미리 경험해보도록 합니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창업 인재 육성을 도모합니다. 실제 활동 중인 전문가의 섬세하고 예리한 분석과 피드백을 통해 취창업에 적합한 방향으로 고쳐 나갈 수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나 취업캠프 등과 같이 학교 주체로 개최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취업에 대한 최근 경향이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구인구직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국내·외 인턴십 및 해외취업 지원도 해드립니다.

취업을 향상 장려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 사업으로 교원 개개인의 취업 지도 역량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학과의 취업률 향상을 유도합니다. 신한대학교 개교의 슬로건 '10·10' 달성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운영중입니다.

Q. 취업이 가까워진 고학년 학생들 외에 1,2 학년을 위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말했던 모든 활동들에 참여 가능하지만 특별히 1,2학년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은 외국어 향상 프로그램입니다. 방학 동안 운영되는데, 학교에서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주고, 출석률이 100% 면 나머지 절반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고 필수인 만큼 1,2학년 때부터 전문 분야의 자기 스펙을 쌓는 동시에 외국어 공부를 게을리 해선 안됩니다.

1,2학년 때부터 일대일 상담을 받으며 자기분석을 해보고, 경진대회에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의 외국인 교수님께 질문하며 외국어와 친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취창업 지원센터에서 향후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세요.

6월 27일부터 2달간 미래직장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환경 분야 청년인재의 미래직장체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현장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일까지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도 홍보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센터에 오셔서 상담해보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Q.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졸업한 지 2년 된 학생이 있는데, 외국어를 썩 잘하진 못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모의 입사 경진대회에 참여해 보고는, 외국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현지인 수준까지 외국어를 잘한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로 공부했어요. 수출을 많이 하는 모 임플란트 회사의 회장님이 특강을 온 날,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직접 스카우트 해간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 신한대학교에서 잘 교육받은 학생을 채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뚜렷한데다 외국어를 잘 하고, 프레젠테이션 능력까지 되니까 막히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Q. 취업, 창업 경쟁 속에 뛰어들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게시판, 플래카드, 현수막, 학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잘 얻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에 왔다 갔다 수업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딪쳐 봐야 합니다. 전공분야 관련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하는데, 똑같은 스펙이 아닌 나만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곳에 목표를 두고, 입사조건을 알아보고, 아르바이트나 하다못해 봉사활동이라도 자처하면서 그 곳에 자주 접해야 합니다. 1,2학년 때부터 취업상담 센터와 친해진다면 얻을게 많습니다. 상담 센터 김사랑 선생님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자기분석, 직무분석, 기업분석 구체적으로 틀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변진영, 박은영 기자〉





기술중심 교육 Super-Tec
교양인양성 Super-Edu
인성중심 교육 Super-Persona
봉사정신 교육 Super-Serve

21C는 **SHINHAN** **Super-Versity** 시대

눈과 입으로 즐기는 디저트 신한대학교 주변 디저트 카페를 추천하다!

길을 걷다 보면 심심치 않게 커피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최근 한국에는 2030세대,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디저트 붐이 불고 있다. 게다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커피와 같은 간단한 디저트는 끼니를 대신하기에도 아주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밥값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즐겨 먹는다. 이는 디저트가 단순한 기호식품의 영역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디저트 시장은 2년 새 무려 5배나 성장했다. 2000년대 초 스타벅스, 이디야 등 프랜차이즈 카페로 시작한 디저트 시장은 그 어떤 산업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커피는 일상 속에서 빠지지 않는 주된 후식이 되었고, 케이크·빙수와 같은 디저트들의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빠른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SNS의 발달로 볼 수 있는데, 젊은이들 중심으로 SNS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은 단순히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시각과 후각, 미각 모두를 사로잡을 수 있는 디저트를 찾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곳곳의 디저트 카페들은 SNS를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더욱 많은 이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디저트 카페의 유행을 선도하는 메뉴는 바로 '생과일주스'이다. 특히나 무더운 여름철엔 사람들은 많은 양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주스 집을 선호하게 되고,

이를 대표하는 생과일주스 전문점 'juicy'로부터 유행이 시작되었다. 'juicy'는 테이블을 없애 인건비를 줄이고, 대량으로 과일을 구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학교 주변에도 정문 쪽에 이미 'juicy'가 입점해 학생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더불어 후문 쪽엔 juicy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킹콩 주스'가 올해 새로 입점하였다. 이 두 곳 모두 1500원부터 시작되는 저렴한 음료들로 메뉴가 구성되어, 신한 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으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 메뉴로는 딸기+바나나 주스와 오렌지+파인애플 주스가 있다.

또한 망월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카페에떼'라는 카페가 있는데, 이곳은 juicy와 킹콩 주스보다 학교와 가까워 학생들과의 접근성은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이곳에선 현재 무료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이즈 업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으며, 여름 메뉴로 단팥·녹차 맛 빙수를 팔고 있다. 특히 빙수 그릇으로 양은 냄비를 사용하여 보다 많은 양을 자랑하며 다른 카페와는 차별화된 구성으로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이때, 멀리 가지 않고 학교 주변에 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맛있는 디저트를 눈으로도 즐기고, 시원하게 입으로도 즐기면서 간단한 휴식을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오소영 수습기자〉





Intro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연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런 연기를 직업으로 삼는 많은 배우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연기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배우가 있다. 바로 '노영학'이다. 노영학은 2006년 데뷔하여 꾸준히 연기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오랫동안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노영학은 현재 신한대학교 공연 예술학과에 입학하여 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다. 노력하는 배우로 앞서가는 노영학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자.

공부하는 배우, 노영학

1. 이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데, 연기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하다 보니, 연기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저 혼자만의 감과 현장에서의 실습만 갖고 연기를 해왔어요. 별다른 책임감이 요구되지 않았던 어렸을 때와 달리, 점점 커가면서 배우로서의 자질과 실력을 요구받게 되었고, 연기에 대한 슬럼프 속에서 고민하던 중, 연기에 대한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접한 책이, 배우들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스타니 슬랍스키의 '배우 수업'이라는 책이었어요. 스스로 깨달았던 연기에 대한 방법들과 혼자 해왔던 연기에 대한 고뇌들이 모두 정리되어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혼자 힘으로 '연기 공부'를 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느끼고, '연극영화과'에 입학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방법론에 따라 연기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이미 현장에서 직업인으로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연극영화과에 진학해야하나고 주위에서 만류도 했지만, 체계적으로 배

워보고 싶다는 열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많은 학교에 지원했지만 쉽사리 합격되지 못했고, 평소 롤모델이자 좋아하는 선배님이셨던, 이범수 학과장님이 신한대학교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신한대학교 공연예술학과에 지원하여 4수만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2. 지금까지의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일단 연기를 하는 상황이 그 동안 제가 겪었던 곳과는 너무 달라요. 항상 잘해야만 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이 주어진 상태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다가왔었는데 학교에서는 달랐어요. 배우는 과정이다 보니, 조금은 못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러다보니 처음으로 잘할 수 있는 연기보다, 제가 재밌는 연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연기를 막 시작했을 때 만큼 학교에서 연기하는 것이 재밌어요. 또 주로 사극을 하다 보니 항상 선생님들과 연기를 했었는데, 또래친구들과 같이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워요. 학교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우일

만큼 너무나 동기들과 잘 어울리고 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은 사라졌던 열정들이, 동기들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며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이상으로, 동기들을 보며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3. 공부와 연기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나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일단 촬영이 한번 들어가면 하루에 2시간도 자기 힘들 정도로 바빠요. 또 대본이 미리미리 나와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촬영이 없는 날에는 대본을 외워야하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더군다나 학교를 다니다보니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무리를 할 수 밖에 없더라고요. 학교 초반엔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은 요령이 생겨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하는 편이에요.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께서도 학교생활이 힘들지 않게 많이 배려해주시고, 동기들도 많이 응원해주어서, 훌륭한 성적은 받지 못해도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No Young-hak

4. 대중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나요?

역시 배우는 연기로 인정받는 게 최고가 아닐까요? 식상하지만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이범수 학과장님처럼,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코믹할 땐 코믹하고, 진지할 땐 진지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또 좋아하는 배우인 게리 올드만처럼 작품마다 관객들로 하여금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요.

5. 앞으로의 배우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사전제작 드라마인 sbs주말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에 인종역으로 촬영 중이에요. 이영애 선배님과 송승헌 선배님이 출연하고 4개국으로 선판매가 된 기대작인데, 급작스럽게 투

입되었어요. 드라마 후반부를 책임지는 꽤 큰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마침 학과 공연 일정과 겹쳐 버리는 바람에, 쉬는 날 없이 바빠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투정부리지 않고, 그토록 제가 바라던 학교생활과 연기생활을 병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졸업까지 2년 반이란 시간이 더 남았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어렵게 들어온 학교인 만큼 소중한 동기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해요. 또 학교에서만 그치지 않고, 시간이 흘러서 신한대학교 동기들을 촬영 현장에서 보면 정말 설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연기 잘하는 배우'로 인정받는 것이 힘든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배움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날이 올 것이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배우'인 노영학이 스크린 속에서 지금보다 더 빛날 날을 기대해본다.

〈김민지 기자〉



2007 - 2008 <왕과나>



2009 <선덕여왕>



2015 <서부전선>



2015 <두번째 스무살>



2016 <사임당, 빛의 일기> (예정)





‘악센트’

K-POP 전공 학생들의 100% 자체 공연

올해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원형극장에서는 벌써 두 차례 공연예술학과 K-POP 전공 학생들의 개성이 돋보이는 ‘악센(accent)’ 공연이 진행되었다. 4월과 5월에 각각 한 번씩 공연된 ‘악센’은 K-POP 전공 학생들이 100%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제작했다는 점에서 타 공연들과 차이를 둔다. 학생들이 원하는 무대를 직접 준비하면서 실력과 경험을 쌓고 신한대학교에 k-pop 전공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악센’의 주된 목적이다.

공연 ‘악센’은 볼거리와 이벤트라는 두 가지의 즐거움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노래와 춤 같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공연 도중에 다양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소소한 재미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 들어 첫 공연인 ‘spring accent’는 봄을 주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봄이란 어떤 것인지 표현하는 무대였다. 이 공연은 봄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다 다른 만큼 다양한 무대를 연출했다. 봄이라는 주제에 맞게 봄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고 반대로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다는 것을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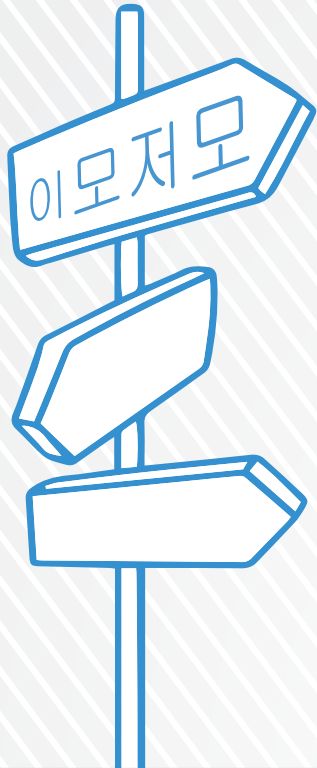
그다음 5월에 진행된 두 번째 공연의 주제는 ‘프리덤’이었다. 이번 공연은 말 그대로 자유를 표현하는 만큼 학생들이 자유롭게 노래를 선정해 무대를 꾸미거나 각자의 개성이 담긴 자유를 표현하는 음악으로 구성하는 등 자신들만의 의미로 해석한 무대가 중심이 되었다.



올해 진행 된 공연들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직접 공연을 준비한 만큼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무대는 버스커 버스커의 ‘이상형’이라는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그 다음 무대는 걸스 힙합의 수준급 댄스를 보여주어 원형극장을 열기로 가득 채워나갔다. 이번 공연은 노래 10팀, 힙합&댄스 6팀으로 구성된 16팀이 각자만의 개성으로 공연장 무대를 장식했다. 공연예술학과 K-POP 대표 김호준 학회장은 2학기에 ‘악센’ 공연을 할지는 미정이지만 학과에서 준비하는 다른 공연이 있다고 한다. 이 공연은 공연예술학과가 매년 11월 때마다 준비하는 정기 공연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악센’은 학과 학생들끼리 준비하고 선보이는 만큼 K-POP 학생들의 열정과 개성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공연이다.

〈이민영 수습기자〉



“정보가 가득한 알파고를 넘어 E-콘텐츠의 세계로!” 제2회 학술전자정보박람회

지난 5월 12일 신한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제 2회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학술전자정보 박람회는 신한대학교 학생들에게 전자저널, 이러닝, 이북 등 전자 자료에 대한 교육과 전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제1캠퍼스와 2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된 박람회는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을 완료한 학생들에게 응모권을 나누어주는 식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학술전자정보박람회를 참여한 학우는 “학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검색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학술전자정보박람회에 참여하면서 많은 전자정보업체들과 협력을 맺어 학생들의 학술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점이 매우 좋았다. 박람회를 계기로 논문이나 학술자료를 찾는 법을 알게 되어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과제를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의 기능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신경을 쓴다면 학문 탐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술전자정보박람회는 중앙도서관이 주최하는 박람회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다. 비싼 돈 주고 사봐야 하는 잡지와 수준 높은 논문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어 쓸모 있는 정보를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응모권 추첨식에는 유보선 행정부총장, 서종표 대외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으로 시작해 보조배터리, 샤오미밴드, 미니빔, 아이패드, 노트북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했다.

유보선 행정부총장은 “제2회를 맞이한 학술전자정보박람회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자정보원 체험기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 전자 자료의 인지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정보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신한대- 사우스필드시 교류 추진

신한대학교는 미국 미시간 주 사우스필드시와 대학-지역 연계사업을 추진기로 했다. 동두천시 초청으로 내한한 사우스필드시 캔사이버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 일행은 5월 3일 동두천시 관계자와 함께 신한대학교 동두천 캠퍼스를 방문해 유보선 부총장, 류광철 국제교류원장, 전현주 국제어학센터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신한대학교는 사우스필드시에 매칭되는 대학교의 학과와 실질적인 교류를 제안했으며 캔사이버 시장도 이를 수용해 신한대학교와의 교류를 희망했다. 사우스필드시 대표단은 동두천시와 우호도시 체결, 교육-문화교류 및 투자유치를 협의하기 위해 내한했는데 신한대학교와 동두천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깊은 관계를 알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모델을 신한대학-사우스필드시 교류모델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진영 기자〉



꿈나무를 응원하기 위한 신한대학생들의 프로젝트 ‘500원의 행복’

지난 2016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1층에서 ‘5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500원의 행복’은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아리 ‘꿈트리’와 언론학과 동아리 ‘다름’에 소속된 학생들이 Under Stand라는 연합팀을 이뤄 기획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FC서울 유소년팀에서 활동하며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에 놓인 의정부 축구영재 힘찬(가명)이라는 아이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신한대학교 학생들 및 교수진을 대상으로 진행된 500원의 행복은 500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한 뒤 하나의 조각을 색칠하여 컬러링 판넬을 채우는 기부형식으로써 총 565,550원이 모금되었다. 모금된 금액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되어 힘찬(가명)이가 현재 축구선수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로 쓰일 예정이다.

〈홍예지 기자, 사회복지학과 신나래〉





홍콩 유스칼리지 학생, 신한대에서 뷰티헬스아트 연수받다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은 5월 10일부터 3일 동안 홍콩 유스 칼리지의 직업훈련기관인 VTC청년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뷰티헤어아트 과정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뷰티헬스학과 헤어실습실과 서울 청담동 준오헤어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홍콩 학생들은 크리에이티브, 헤어바이나이트, 롱헤어다운(시범) 등 커트, 업스타일 실무위주의 현장 교육을 이수했다. 연수생들은 준오헤어 미용실을 견학하고 트렌드 특강도 들었다. 교육은 신한대 뷰티헬스학과 김민정 교수, 신한대 김신아 외래강사, 준오헤어 강사가 진행했다. 학생과 교사 등 32명을 인솔한 책임자 낸시는 “많은 배려와 환대를 해준 신한대학교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이번에 K뷰티를 직접 배운 것을 계기로 신한대학교와 매년 상호 교류를 희망했다.

<권혜미 기자>

사회복지학과와 함께하는 동네방네 그림잔치

5월 28일 송내동 시민공원 차 없는 거리에서 신한대학교와 동두천시가 함께하는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제3회 동네방네 그림잔치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관내 유치부와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그림솜씨를 뽐내었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타일벽화 그리기, 가족상 호작용검사, 4D 왕관 만들기, 어린이 요리경연, 큰키나무 이동형성교육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설치되었다. 무대 공연장에서는 밴드 및 오케스트라, 군부대합창단, 난타, 댄스 등 시민들이 함께 즐기는 공연도 함께 열렸다.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날 잔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동두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황희숙 센터장은 “앞으로 동두천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우선하는 섬김 봉사로 나아가는 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최희원 기자>



재학생-외국인 학생 연결고리 ‘My Buddy동아리’ 발대식

4월 29일 의정부 캠퍼스 에벤에셀관에서 국제교류원 국제어학센터가 2016년 My Buddy 동아리 발대식을 가졌다. My Buddy 동아리는 한국 문화 이해를 통한 교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외국 유학생이 교내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대식에선 동아리 멤버들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서로 친구 되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교류를 통해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글로벌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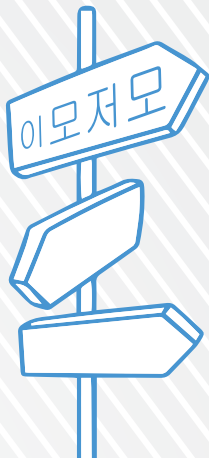
<홍예지 기자>

‘코이카 봉사단 직무교육 통합워크숍’ 열려

신한대학교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 직무 교육’ 양성기관으로 재 선정되어 ‘109기 월드프렌즈 코이카 봉사단’ 교육생 74명이 5월 12일에 신한대학교와 서울교육원(코이카 월드프렌즈교육원)에 나누어 입소했다.

이날 입소한 교육생들은 7박8일간 관광, 간호, 방사선, 자동차를 비롯한 19개 직종으로 직종별, 교육생별 파견대상지 정보를 제공받고 현지맞춤형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신한대학교는 교육대상을 상대로 사전입문테스트를 통한 교육 수요자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생의 역량과 교육 요구사항이 반영된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업 책임자인 장형성 신한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통합워크숍을 통해 강사진들이 코이카와 월드프렌즈 해외봉사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지민 기자>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대원	시설지원팀	배영금	국제어학과	장정순	사회복지학과	나루터생선구이
강정원	유아교육과	변희진	산업디자인전공	전법주	에너지환경공학과	대양종합건축사
고광칠	시설지원팀	서수연	뷰티헬스 전공	전영주	비서홍보팀	대한나래출판사
고영아	국제어학과	송기상	대외협력팀	전현주	국제어학과	대한방사선사협회경기도회
곽영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송진희	컴퓨터공학전공	정세훈	안경광학전공	도구건설㈜
금경란	국제교류2팀	신경환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정은정	평생학습중심대학	동성크리너
김경희	유아교육과	신현곤	에너지환경공학과	조혜선	유아교육과	류혜숙
김기순	산업디자인전공	신현정	컴퓨터공학전공	주대환	평생학습중심대학	삼설엔지니어링
김남중	치기공학과	안화미	중앙도서관	진선범	수업학적팀	성모안과의원
김문규	중앙도서관	오병칠	공간디자인전공	진원재	산업디자인전공	송내교회
김민정	뷰티헬스 전공	오이곤	공법행정학과	최병호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양지돌
김민화	유아교육과	오홍진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최에스더	뷰티헬스 전공	오시나래
김봉건	시설관리팀	유진현	호텔조리전공	한수범	글로벌통상경영학과	우성치킨
김선명	에너지환경공학과	윤상근	평생교육원	홍경옥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의정축산식당
김옥희	교양학부	윤효숙	임상병리학과	홍수희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일창환경(주)
김용섭	교육실	이강식	시설지원팀	황만수	컴퓨터공학전공	전원식당
김용환	에너지환경공학과	이금숙	사회복지학과	황보상원	공법행정학과	조광덴탈주식회사
김재건	에너지환경공학과	이기석	자동차공학과	황재석	에너지환경공학과	카네이션요양병원
김종록	시설지원팀	이기찬	교양학부	한불에너지관리(주)	한불에너지관리(주)	카리스홈엔테리어
김주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남전	취창업지원센터	KB국민은행도봉지점	KB국민은행도봉지점	플래너돌잔치전문점
김주현	입학팀	이대성	정보화지원센터	해동종합건설	해동종합건설	항구탑차
김지영	학생지원팀	이대홍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삼진지디에프(주)	삼진지디에프(주)	허진
김창희	산학협력단	이동원	학생지원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홍은
김현숙	수업학적팀	이명호	호텔조리전공	㈜진학어플라이	㈜진학어플라이	황소화로구이
김현영	간호학과	이승영	산학협력단	간호학과동문회	간호학과동문회	
류재경	치기공학과	이웅배	뷰티헬스 전공	김진오법률사무소	김진오법률사무소	
박노현	관리운영처	이은정	호텔조리전공	동진고속관광(주)	동진고속관광(주)	
박문찬	안경광학전공	이정규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	서울시치과위생사협회	
박용민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종탁	언론학과	숙편한내과의원	숙편한내과의원	
박정우	글로벌관광경영학과	이청재	치기공학과	에듀잡코리아	에듀잡코리아	
박주원	유아교육과	임민경	간호학과	오크힐커피	오크힐커피	
박준수	평생학습중심대학	임승희	사회복지학과	장성호세무회계사	장성호세무회계사	
박현수	공간디자인전공	장용운	글로벌통상경영학과	㈜부라보스튜디오	㈜부라보스튜디오	
박효철	공간디자인전공	장은주	유아교육과	파리바게뜨(신정역점)	파리바게뜨(신정역점)	
배시애	교양학부	장인봉	공법행정학과	굿노브모터스	굿노브모터스	

나루터생선구이
대양종합건축사
대한미래출판사
대한방사선학회경기도회
도구건설㈜
동성크리너
류혜숙
삼설엔지니어링
성모안과의원
송내교회
양지돌
오시나래
우성치킨
의정축산식당
일창환경(주)
전원식당
조광네탄주식회사
케네이션양병원
카리스홈테리어
플래너돌잔치전문점
항구탐차
허진
홍은
황소화로구이

자녀는 선

인적사항	□ 동문 □ 재학생 □ 학부모 □ 법인(기업) □ 일반인(비동문)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학적사항 ※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주소	(주택)		(TEL)	
		(직장)		(TEL)	
E-mail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 자택 □ 직장		기부 추천인		
약정	총액	금(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일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국제교류원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3 (Fax 3169)
- 우편 : (480-701)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팀

2016. 06 / 187호

편집후기

홍예지 기자

이번에 어려운 기사를 맡게 되어 부담감이 컸지만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된 것 같아 기쁘다.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었고 기사를 잘 써야 한다는 책임감도 더 배운 것 같다. 어려운 기사를 쓰게 되어 다른 기자들한테 배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점은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어느새 또 하나의 호가 끝나있다. 앞으로도 기자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해보고 싶다.

김민지 기자

신문사를 하면서 제일 바빴던 호였던 것 같다. 취재할 것도 많고 일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도 많았다. 그러면서 실수도 있었고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다행히도 기자들이 잘 따라주어서 이번 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경험으로 인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운 것 같다. 아직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또 하나를 끝냈다는 마음에 뿌듯하다.

박은영 기자

이번 호에는 저번보다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남지만 아직 기회도 많고 발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남았기에 더 충실히 편집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인 기사를 써보는 경험은 적지 않았지만 인터뷰 기사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는데 이번기회를 통해 경험하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이제 곧 신문사에서 활동한지 1년이 되는데 내 실력에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그간의 활동은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호가 되었다.

오소영 기자

처음은 항상 떨리고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이번 '신한 특특'에 내가 쓴 기사가 처음으로 실렸다. 긴장 반, 설렘 반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아직 내가 너무 미숙한 것이 느껴져서 아쉬웠다. 다음번에는 나와 신한 특특 둘 다 더 발전한 모습하기를 바란다.

이민영 기자

올해 신문사 수습기자로 들어와 처음 기사를 맡게 된 만큼 걱정이 되고 설레기도 하였다. 이번 '신한 특특'을 쓰면서 글솜씨가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고 선배들을 본받아 열심히 하여 부족한 점을 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호 기사를 쓸 때는 이번 호보다 더 나은 기사를 선보이고 싶다.

최희원 기자

어느새 훌쩍 한 학기가 지나고, 신한 페스티벌과 신한대 축제의 열정을 그대로 품은 신한특특 187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는 말은 파트를 취재하는 것도, 기사를 쓰는 내용도 즐거운 행사들이 많아서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다. 이 기운을 그대로 가져가서 다음 호에서도 기자들과 즐거이 작업했으면 한다. 아자아자 신문사! 파이팅 신한특특!

권혜미 기자

한 학기도 훌쩍 지나 어느덧 여름방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호는 무엇보다 학생들이 함께 웃고 즐겼던 축제를 중심으로 취재가 이루어져서 재미있게 편집에 임했던 것 같다. 축제 기간 동안 함께 고생했던 기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싶고, 다음 학기에도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가득한 신한특특이 발간되길 바란다.

변진영 기자

완연한 봄 냄새 맡으며 캠퍼스를 거닐던 때도 잠시, 앞다투어 손부채질을 하는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 여름의 열기만큼이나 뜨겁던 축제의 열기는 우리를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번 호는 체육대회와 축제로 흥겨웠고, 여러 사람을 만나 따뜻했으며, 처음으로 수습기자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 풍부했다. 종강과 동시에 신문사 엔티를 가게 된다. 신난다!

반지민 기자

<신한특특> 187호가 발간되었다. 이번 호는 유독 외부 촬영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함께 고생한 교수님과 기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런 노력들이 담겨있는 소식지이기에 더 많은 신한인들이 유익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더 발전한 <신한특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 센! 창조와 융합교육 | 글로벌 현장교육 | 신한(信韓)류 미래교육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인재양성을 창학이념으로 출발한 신한대학교!
 지난 반세기 동안 기술인재 양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 센세이셔널한 신한대학교의 비전을 펼쳐 나갑니다!